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보내는 3 월의 기도 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 27- 29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곳 딱나는 긴 여름이 끝나고 이제는 해가 지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낮에는 아직까지 덥습니다.

한국과 겨울은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 오고 있겠지요..

지난 해 연말부터 정치적으로 어수선했던 페루는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수선했던 가운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아원 이야기

지난 해부터 고아원 에드와르도의 언청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알아보았는데 아레끼빠에 있는 병원에 예약이 되어서 고아원의 책임자와 함께 에드와르도를 데리고 지난 3 월 중순에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딱나에서 자동차로 6 시간 거리에 있는 페루의 제 2 수도인 아레끼빠에 가서 언청이 수술을 위한 의사의 소견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3 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입과 얼굴 수술을 하게됩니다. 아이가 끝까지 잘 버텨주고 아이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지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번에는 1~3 월까지의 긴 방학동안 글을 못 읽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노에미는 12 살인데도 글을 몰라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고, 글을 읽지 못해 성경공부 시간에는 늘 표정이 어두웠는데 노에미를 시작한 공부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 7 명의 아이들이 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에미가 글을 읽자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는 모습에 주님께 그리고 섬겨준 리더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암송 시간에 저에게 뛰어와서 “이모 저 오늘은 요절을 외웠어요” 하며 자랑하더군요.



소년원 이야기

소년원에는 여자 아이들 22 명과 남자 아이들 8 명이 굳게 닫혀있는 각각 다른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상황(자신의 문제, 부모의 부주의)으로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부모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데려 가지 않으면 18 살까지 소년원에서 살다가 나가야 합니다. 소년원에서 18 살이 되어 생존을 위해 세상으로 나갈때 아무런 준비없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동안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용, 네일 기술, 한국어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알도록 성경공부를 4 팀으로 나뉘어 매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월 부터 시작한 성경쓰기 (잠언, 요한복음)를 마친 아이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8 명의 학생들이 잠언과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선물을 받고자 시작한 성경 쓰기였지만 성경공부를

할때 많은 깨달음을 받은 것을 알게되어 마음이 흐뭇합니다. 성경을 쓰고 상을 받는 것을 본 성경공부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아이들이 뒤늦게서야 자신들도 쓰겠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고아원과 소년원의 아이들에게 전한 복음이 특히 소년원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살던 우리가 심어준 복음의 씨앗이 자라 훗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아원과 소년원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장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 1 사역(한국어 학원, 기술학원, 현지인교회 말씀공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2. Mision Shamma 를 통해 고아원의 아이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3. 소년원에서의 성경공부(4 팀)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4.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 할 수 있도록